

사설(社說) 3 · 21 ‘시라카바회(白樺會)의 날’

2022년 3월 19일

목소리와 눈빛에 마음을 담아

“‘시라카바(白樺)사람’이라고 들으면/누구나가 안심한다.”

이케다(池田) 선생의 시(詩)의 한 구절이다. 모레 21일은 ‘시라카바회(白樺會)의 날’. 1986년 이날, 간호(看護) 일에 종사하는 여성부의 모임 ‘시라카바회’가 결성되었다.

시라카바(白樺, 자작나무)는 벌목 후의 황무지나 산불이 난 뒤에도 가장 먼저 모습을 나타내고 다른 식물이 우거지는 환경으로 일변시킨다. 바로 사람들의 생명력을 끌어내는, ‘발고여락(拔苦與樂)’의 자비(慈悲)의 간호에 철저하는 벗의 모습 그대로다.

지난달, 새롭게 사이토(齋藤) 위원장이 탄생해 지금까지의 여자부 ‘시라카바그룹’과 하나가 되어 새롭게 출발했다.

사이토 위원장은 말한다.

“시라카바의 승리가 모든 승리로 이어집니다. 강하고 따뜻한 시라카바자매의 유대로 ‘미래의 보배’인 여러분과 함께, ‘생명이야말로 보배’인 생명존엄(生命尊嚴)의 세계를 구축해 가고 싶습니다.”

저출산·고령화나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 여전히 어려운 노동환경 속에서 시라카바의 벗은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응시하며, 눈앞의 있는 한 사람의 불성(佛性)을 믿고 삼세(三世)의 생명에 제목(題目)을 계속해 보낸다. 때로는 자신도 고민을 끌어안고 몹시 지쳐 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래도 환자에게 향하는 것은 “생명이야말로 존극한 보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벗은 말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맨손으로 환자를 접촉하기가 어려워졌다. 페이스 실드와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제대로 웃지도 못한다. 그렇기에, 라며 벗은 저 소리에, 그 눈빛에 창제(唱題)로 축적한 생명력과 마음을 담는다.

호흡기 내과에서 일하는 벗도 그중 한 명. 하루종일, 방호복을 입고 솟는 땀을 닦을 여유조차 없이, 구멍의 장소에 입회(立會)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울면서 방호복을 입는 젊은 간호사를 끌어안듯 격려하며, 함께 환자에게로. 기원을 담아 접할 때면 얼굴이 굳어 있던 환자도, 어느새 웃는 얼굴로 바뀌어 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을/나의 사명감(使命感)으로/나는 타락(墮落)시키지 않는다.”는 이케다(池田) 선생님의 지침(指針)을 가슴에 품고 시라카바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간다. 그 모습을 동경해 그녀의 큰딸은 울봄 간호학교의 문을 들어간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자애(慈愛)하는 마음은 그대로 강한 ‘평화의 마음’이 된다.”고 선생님은 역었다.

불안(不安)이 소용돌이치는 시대에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평화의 마음을 넓히는 시라카바의 벗에게 오늘도 감사의 기원을 바치고 싶다.